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우비(雨備)를 통한 인체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리 응

우비(雨備)를 통한 인체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리 응

인 준 서

김리웅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시련과 상처를 겪은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겪은 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시련을 딛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를 찾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바로 삶을 조망하고 성찰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은 우산, 비옷, 장화 등 보호기구들이 비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상징적 의미, 즉 비가 주는 이중적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인체의 동세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본인 작품의 은유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상징성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2017년 발표된 본인의 개인전 <Rhythm of the rain>을 중심으로 작품의 창작배경과 표현방법을 연구, 분석하였다. 또 우비를 장착한 인물 형상에서 드러나는 상징성내지는, 인체형상의 표현을 통한 내적 감정의 표출에 대하여 3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최근 시련을 겪은 본인의 개인적 상황과 그 경험을 작품을 통해 은유적인 표현방식으로 표현하게 된 계기를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비옷과 비의 상징적 의미, 인체 동세의 표현에 대해 고찰하였고,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체와 우비의 표현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나아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감정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배경	3
1) 우비와 비의 상징적 의미	3
2) 인체의 동세에 대한 고찰	4
2. 작품의 표현방법	6
1) 인체의 표현	6
2) 우비의 표현	7
3. 작품 분석	9
III. 결론	2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Waiting/ 70×30×30cm/ poly, acrylic/ 2017	9
【작품 2】 Look back/ 78×30×30cm/ poly, acrylic/ 2017	12
【작품 3】 Balance/ 99×30×30cm/ poly, acrylic/ 2017	15
【작품 4】 Spring/ 70×30×30cm/ poly, acrylic/ 2017	18
【작품 5】 Summer/ 70×30×30cm/ poly, acrylic/ 2017	18
【작품 6】 Fall/ 70×30×30cm/ poly, acrylic/ 2017	18
【작품 7】 Winter/ 70×30×30cm/ poly, acrylic/ 2017	18
【작품 8】 Touch/ 72×30×30cm/ poly, acrylic/ 2017	21
【작품 9】 Into the rain/ 72×46×46cm/ poly, acrylic/ 2017	24

I. 서론

얼마 전 본인은 사고로 아버지를 잃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인간이 갑자기 들이닥친 시련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시련 속에서 본인은 망연한 상실감과 슬픔, 그리움과 기대 등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본인에게 절대적인 존재이자 영웅이었으며, 강인함의 상징이었으며, 또 성장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에는 넘어져 피를 흘려도 아버지가 치료해줄 수 있었고, 동네 형들의 괴롭힘 당해도 그들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말없이 지지와 믿음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이 보호막은 악천후에 인간을 비와 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산과 비옷, 장화 등으로 대표되는 우비와 은유적인 차원에서 일치함을 가진다고 생각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위험으로부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귀의처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역할과 존재를 본인의 작품에서는 우비(雨備)¹⁾라는 보호 장비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산, 우비, 장화 등 물품들이 가지는 상징성 중에서 보호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각표현의 방법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인물을 정확히 커버할 수 있는 방향성과 크기를 가진 머리 위의 우산과, 실제보다 풍성하고 포근한 느낌이 강조된 비옷, 그리고 실제보다 크

1) [명사] 비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산, 비옷, 샷갓, 도롱이 따위를 이른다.

고 두툼하게 표현된 장화 등은 과장된 방식으로 보호 장비가 주는 시각적 안정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비의 다중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인물의 동세, 표정 등을 연출하여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세부적인 의미표현에 주목하였다. 시리즈 작품 전체는 인물을 통해 표현된 여러 감정과, 우비의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지며, 서로 다른 일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포괄적으로 인간과 우비의 관계를 ‘보호하다’와 ‘보호받다’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본인의 가족을 잃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보호의 의미를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서술하였다. 슬픔을 해소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은 창작과정을 통해 가능했으며, 그 작품 창작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 배경과 표현방법 그리고 작품분석을 기술하였다.

Ⅱ. 본 론

1. 작품의 형성배경

1)우비와 비의 상징적 의미

사물은 상징성을 가진다. 사물은 본질적인 성질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징(symbol)이라는 단어는 '조립하다', '짜 맞추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심발레인(symballein)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의 그리스어 명사형인 심볼론(symbolon)은 부호(mark), 증표(token), 기호(sign)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은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일정한 기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 형식으로서의 상징은 일반적 의미의 상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학적 상징은 한 나라의 국기가 국가를, 거수경례가 충성을 등과 같이 각종 신호체계가 사회적 규율을 의미하는 방식인 제도적 상징과는 다르다. 문학적 상징은 외부적 규율과 구분되는 개인의 내적 체계와 관계된다. 대체로 문학적 표현방식으로서의 상징은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암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물로 관념적인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문학적 상징은 지시 대상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에서 상징은 단순히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환기시키는 작용을 한다.²⁾

우비는 우천 시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보호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 중 우산은 역사적으로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1200년경 이집트에서는 귀족 계층만이 우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우산은 나약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남성들은 우산 대신 모자를 사용하거나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았다고 한다.³⁾

우비와 함께 연상 되는 것은 비다. 비는 자연 속 생물들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경우에 따라 피해야 하거나 불쾌한 것으로도 여겨지는 이중성을 갖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필연적 존재인 비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한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비와 우산은 운명과 그 운명에 맞서는 태도를 상징할 수 있다.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이며, 그 선택에 의해 운명의 길은 갈리게 된다. 누구라도 운명의 길 앞에서는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꼭 겪어야만 하는 필연과 맞닥뜨리게 되며, 자연과 운명을 마주하는 태도를 통해 삶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2) 인체의 동세에 대한 고찰

태고 시대부터 인간의 움직임은 종종 의미가 부여되어 왔으며,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삶 자체가 움직임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운동성은 인간세계의 본질이자 생명의 상징이며, 살아있음의 징표였다.

움직임의 단위가 되고 매체가 되는 신체부위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가? 프랑소와 데사르트(Francois Delsarte)⁴⁾는 인간 신체를 표현적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와 법칙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추구하고 자연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진실성이 무엇이며, 그 진

3) 발명상식사전, 2012. 1. 10., 박문각

4) 체육학대사전, 이태신, 2000. 2. 25., 민중서관

실성이 몸짓과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의 현상에는 근본이 되는 움직임의 원리가 있으며, 대표되는 원리는 삼위일체로서 이심(離心), 중심(中心), 동심(同心)으로 각 사물은 중심을 지녔고 두 미미(末尾)와 극한지점(極限地點)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의 기능에 따라 정신기능이 작용하며 신체의 전초적인 기능에 따라서 정신행위가 작용한다. 즉 각각의 몸짓이란 그 어떤 것의 표현이며 사고, 감정, 느낌, 몸짓이 의도와 동기로부터 발생하고 선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을 전제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시간성과 공간성을 따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신체가 조절될 수 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움직임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골격과 관절 그리고 근육계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반응하면서 가벼운 동작은 물론, 활 운동, 각 운동, 원추 운동, 회전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어느 방향으로든 굽힐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님으로써 탄성체와 같은 궁극의 형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⁵⁾

이러한 동작들은 어떤 목적을 수반한 율동, 즉 신체예술로 표현되는 춤이나 무용, 또는 스포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반한 동작들은 여러 운동이 막연히 모이거나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질서, 팽창과 수축, 상반과 상합, 용기와 하강, 진출(전진?)과 후퇴 등 공간과 시간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이고도 정돈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질서에 의해 형성된 유기적 운동의 통일체로 ‘출력’되는 동작으로 인하여 미적 표현을 달성할 수 있으며 무한한 생명력을 고취할 수 있다. 생명력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생명감 있는

5) 「인체의 동세에 의한 도자조형연구」, 박선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5

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소재의 본연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신체에 몰입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창작행위의 진실성은 대상으로 전환되어 더욱 강한 생명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한 존재가 진실과 개성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여 획득한 생명력은 그 자체로도 조형적인 가치를 드높이며 창조적 표현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작품의 표현방법

1) 인체의 표현

인체는 그 자체로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지만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조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인체는 인간체함을 환기시켜주는 예술의 한 형식으로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상물인 인체는 각 부위와 기능별로 전달하는 느낌이 상이하다. 골격이나 관절과 같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굴곡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미적충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균형과 조화의 실현으로 우리는 고양된 생명력을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적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는 다른 어떠한 형태들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하며, 심지어 호기심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모티프로 작용한다. 즉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온갖 기억들을 불러일으킨다."⁶⁾

인체의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 인간의 진실성이 묻어나며, 찰나

6) K. 클라크."누드의 미술사". 이재호(역). 서울: 열화당, 1982,p.12

의 동작에서는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한 작품 속에는 작가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심상이 확연히 드러나며, 그 모습이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작가의 삶과 의식은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본인은 동세가 전달하는 느낌에 따라 힘차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형태, 그리고 역동성이 감소되어 부드럽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유동적인 형태, 그리고 약간의 운동감을 보여주는 잔잔한 형태의 동세 등 3가지 요소를 작품제작에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역동적인 형태와 유동적인 형태, 잔잔한 형태의 동세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첫째, [작품2]와 [작품3]에서의 역동적으로 표현된 인체는 활력이 넘쳐 긴장감을 더해주며 대상이 더욱 강하게 지각된다.

둘째, 부드럽고 자유로운 움직임 보여주는 유동적인 형태의 동세는 흐르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부드러움은 [작품1]과 [작품 7]을 통해 표현된다.

셋째, [작품 4]와 [작품 5]에서는 동세가 크지 않고 작은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다소 정적인 동세가 주는 잔잔함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2) 우비의 표현

우비를 기본도구로 사용하여 감정의 표현을 강조하는 이번의 작품시리즈에서 우산의 형태, 위치, 방향 등은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우산은 감정표현, 미적표현 등에서 모두 보조적 역할이지만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접혀진 상태는 비가 아직 오지 않음을 표현하였으며(작품 1) 비가 곧 올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물의 동세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우산과 함께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그리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작품<Look back>(작품 2)에서는 발과 머리가 각각 반대되는 방

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 사이 지점은 더욱 역동적인 시각을 강조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산을 꼭 감아쥔 손을 가슴에 대어 움츠리는 듯한 동세로 표현이 된 <Touch>(작품 8)에서 우산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In to the rain>(작품 9)에서는 몸에서 멀리 젖혀져 있는 상태로 더 이상 비를 피하지 않으려는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비옷의 표현은 인체의 동세를 표현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빈틈없이 몸을 감싸는 비옷의 특징에 따라 인체 동세와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하여 인체를 타고 흐르는 선을 표현하였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크게 2가지의 표현방식이 시도되었는데, 작품<Waiting>에서 표현된 우비는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이다. 상대적으로 상세한 주름, 무게 있는 표현은 인물형상의 기다림에 대한 감정표현에 있어서 절실함을 더해주고 현실적인 시각 느낌을 전달한다. 반면에 그 외 작품에서 비옷의 상징적인 의미와 시각적인 단순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형태를 최대한 간소화하였다. 목 부위부터 종아리까지 유연한 곡선을 타고 내오는 형태로 비옷의 보호, 숙박 등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고, 반면 비와의 관계에서는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리적 방향의 동일성과 침투 불가능한 매끄러움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색을 입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에 씻긴 듯한 동양화의 표현을 차용하여 흐르는 비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비의 하나인 장화는, 그 형태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어 전체적인 조형적 안정감을 찾고자 시도하였으며, 무게 추 역할을 하여 형상이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작품분석



【작품 1】 Waiting/ 70×30×30cm/ poly, acrylic/ 2017

【작품 1】 Waiting

제작년도: 2017

작품크기: 70×30×30cm

작품재료: poly, acrylic

제작방법-

1. 연성 알루미늄 환봉을 사용하여 인체 골조를 만든 뒤 지지대에 고정하여 포즈를 잡는다.
2. 포즈가 잡힌 골조에 점토를 사용하여 소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다.
3. 완성된 점토 형태 위에 이형제를 바르고 석고를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다.
4. 석고 몰드에 이형제를 바르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원형 캐스팅 작업을 한다.
5. 석고 몰드에서 탈 형 작업을 하고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 작업을 한다.
6. 4mm 스테인리스 환봉에 너트를 용접하여 우산대를 제작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캐노피를 볼트로 고정시켜 우산 모형을 제작한다.
7. 수성 아크릴 물감을 농도를 조절하여 수채화 기법으로 착색 작업을 한다.

작품설명-

기다림이란 감정은 복합적인 것이다.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며, 기대를 통해 두려움과 긴장감이 표현된다. 순간의 이미지는 일련의 스토리에 대해 열린 상상의 여지를 남겨준다. 이것은 모든 서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전개방식이다. 이 중에서 비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우산, 우비, 장화는 준비되어 있으며, 어찌 보면 우비를 입은 상태에서 우산을 들고 있다는 것은 본인을 위한 우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품은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다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상태를 연출하

며, 기다리는 자의 복합적인 감정과 작품 속 상황이 만나 아련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작품 2】 Look back/ 78×30×30cm/ poly, acrylic/ 2017

【작품 2】 Look back

제작년도: 2017

작품크기: 78×30×30cm

작품재료: poly, acrylic

제작방법-

1. 연성 알루미늄 환봉을 사용하여 인체 골조를 만든 뒤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포즈를 잡는다.
2. 포즈가 잡힌 골조에 점토를 사용하여 소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다.
3. 완성된 점토 형태 위에 이형제를 바르고 석고를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다.
4. 석고 몰드에 이형제를 바르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원형 캐스팅 작업을 한다.
5. 석고 몰드에서 탈형 작업을 하고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 작업을 한다.
6. 4mm 스테인리스 환봉에 너트를 용접하여 우산대를 제작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캐노피를 볼트로 고정시켜 우산 모형을 제작한다.
7. 수성 아크릴 물감을 농도를 조절하여 수채화 기법으로 착색 작업을 한다.

작품설명-

발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머리는 돌려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발과 시선의 상반되는 방향은 심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과거에서부터 나의 가치와 열망이 담긴 미래까지 폭넓게 조망해야 하며, 거기서 먼저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 이는 과거에 대한 추억이자 걸어온 길에 대한 회상이며, 기존의 자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을 때, 특히 그 길이 순탄치 않고 일정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길일 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이것은 후회의 의미라

기보다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자 미지의 앞길을 나아갈 용기를 충전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의 가치와 열망이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별해 주는 기준이자 과거의 상처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폭제가 된다.



【작품 3】 Balance/ 99×30×30cm/ poly, acrylic/ 2017

【작품 3】 Balance

제작년도: 2017

작품크기: 99×30×30cm

작품재료: poly, acrylic

제작방법-

1. 연성 알루미늄 환봉을 사용하여 인체 골조를 만든 뒤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포즈를 잡는다.
2. 포즈가 잡힌 골조에 점토를 사용하여 소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다.
3. 완성된 점토 형태 위에 이형제를 바르고 석고를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다.
4. 석고 몰드에 이형제를 바르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원형 캐스팅 작업을 한다.
5. 석고 몰드에서 탈형 작업을 하고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 작업을 한다.
6. 4mm 스테인리스 환봉에 너트를 용접하여 우산대를 제작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캐노피를 볼트로 고정시켜 우산 모형을 제작한다.
7. 수성 아크릴 물감을 농도를 조절하여 수채화 기법으로 착색 작업을 한다.

작품설명-

빗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또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해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힘과 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발밑의 기차 레일은 인생의 길 - 그 과정을 은유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이 레일은 수많은 밸런스 맞추기의 지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시련일 뿐이다. 그 시련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긍정적인가? 이런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상처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의미로 재구성된다.



【작품 4】 Spring 【작품 5】 Summer
【작품 6】 Fall 【작품 7】 Winter
70×30×30cm/ poly, acrylic/ 2017

【작품 4】 Spring 【작품 5】 Summer

【작품 6】 Fall 【작품 7】 Winter

제작년도: 2017

작품크기: 70×30×30cm

작품재료: poly, acrylic

제작방법-

1. 연성 알루미늄 환봉을 사용하여 인체 골조를 만든 뒤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포즈를 잡는다.
2. 포즈가 잡힌 골조에 점토를 사용하여 소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다.
3. 완성된 점토 형태 위에 이형제를 바르고 석고를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다.
4. 석고 몰드에 이형제를 바르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원형 캐스팅 작업을 한다.
5. 석고 몰드에서 탈형 작업을 하고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 작업을 한다.
6. 4mm 스테인리스 환봉에 너트를 용접하여 우산대를 제작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캐노피를 볼트로 고정시켜 우산 모형을 제작한다.
7. 수성 아크릴 물감을 농도를 조절하여 수채화 기법으로 착색 작업을 한다.

작품설명-

자연은 사계절에 맞춰 반복된다. 봄을 맞아 싹이 트고 여름을 거쳐 성장하며 추수기에는 성숙하여 추위를 견뎌내는 힘을 축적하고, 다가올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이 세상의 이치에서 비는 더 이상 시련과 고통을 주는 -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존재를 넘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키워주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항상 새로운 희망을 기도하며 성장과 성숙을 기원한다. 시작과 끝이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

과 행복의 교차점을 거쳐 원을 그으며 돌아가는 삶에 대해 담담한 깨달음을 얻는다.



【작품 8】 Touch/ 72×30×30cm/ poly, acrylic/ 2017

【작품 8】 Touch

제작년도: 2017

작품크기: 72×30×30cm

작품재료: poly, acrylic

제작방법-

1. 연성 알루미늄 환봉을 사용하여 인체 골조를 만든 뒤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포즈를 잡는다.
2. 포즈가 잡힌 골조에 점토를 사용하여 소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다.
3. 완성된 점토 형태 위에 이형제를 바르고 석고를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다.
4. 석고 몰드에 이형제를 바르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원형 캐스팅 작업을 한다.
5. 석고 몰드에서 탈형 작업을 하고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 작업을 한다.
6. 4mm 스테인리스 환봉에 너트를 용접하여 우산대를 제작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캐노피를 볼트로 고정시켜 우산 모형을 제작한다.
7. 수성 아크릴 물감을 농도를 조절하여 수채화 기법으로 착색 작업을 한다.

작품설명-

운명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피하기만 하던 그 두려운 존재와 적극적으로 대면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실제로 삶의 모든 상황에서 처음은 항상 어려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태도와 관념, 마음의 변화는 큰 가치를 가지며 때로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지만, 또 때로는 영원히 닿지 못할 먼 거리가 되기도 한다. 시련과 상처를 겪은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시련을 겪은 후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 시련의 의미를 발견

할 수 없을 것이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의미를 찾기 위한 일련의 노력, 즉 삶을 조망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품 9】 Into the rain/ 72×46×46cm/ poly, acrylic/ 2017

【작품 9】 Into the rain

제작년도: 2017

작품크기: 72×46×46cm

작품재료: poly, acrylic

제작방법-

1. 연성 알루미늄 환봉을 사용하여 인체 골조를 만든 뒤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포즈를 잡는다.
2. 포즈가 잡힌 골조에 점토를 사용하여 소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다.
3. 완성된 점토 형태 위에 이형제를 바르고 석고를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다.
4. 석고 몰드에 이형제를 바르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원형 캐스팅 작업을 한다.
5. 석고 몰드에서 탈형 작업을 하고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 작업을 한다.
6. 4mm 스테인리스 환봉에 너트를 용접하여 우산대를 제작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캐노피를 볼트로 고정시켜 우산 모형을 제작한다.
7. 수성 아크릴 물감을 농도를 조절하여 수채화 기법으로 착색 작업을 한다.

작품설명-

우산은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동시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비는 시련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존재에 대한 성숙된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없다. 시련을 극복할 용기와 스스로 성장에 대한 독립적인 신념이 없다면 영원히 우산과 우비 안에서 생존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Ⅲ. 결 론

시련은 인간의 삶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절망의 끝으로 내몰아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련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이중적인 속성은 우리의 한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용기를 불어넣는다.

비와 우비의 상징성을 모티프로 표현된 시련과 운명,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본인의 이번 작품들은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작가 본인의 심경과 조형적 능력, 미적 감각과 현시대에 대한 통찰 등이 혼재되어 제작된 작품에 대해 세상이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따라 예술의 공공성이 발현되고 최종적으로는 작품의 물적 가치가 책정된다. 앞선 언급한대로 개인적 감정의 산물인 시각적 조형예술이 관객에게 공감을 얻어 비로소 작품의 가치를 가진다는 본인의 이해기준에서는 이번의 작업 경험이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고민과 실험의 여지를 남길 것이다.

우산, 비옷, 장화 등 우비를 나타내는 작품 속 상징물은 사소한 손가락 끝 하나까지 빠짐없이 집중하여 표현하였으며, 인체의 동세와 결합하여 내적인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출하였다. 시리즈 작품이 일정한 기승전결의 맥락을 이어가며 서로 호응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며 하나의 주제를 배경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생산되는 과정은 작가에게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소양을 요구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흥미로운 여정이자 의미가 있는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저서

- 1) 루돌프 라반, 김길자 역, 『현대의 무용교육』, 백출판사, 1981
- 2) K. 클라크, 이재호 역, 『누드의 미술사』, 열화당, 1982
- 3) 하버드 리드, 김성희 옮김,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 4)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옮김, 『조형 원리』, 예경, 1979
- 4) 주장현, 『왼손과 오른손』, 시공사, 2002
- 5) 미학연구회 저, 『미학』, 문명사, 1987

기타

- 1) 「추상성으로 표현된 음각형상의 우산이미지」, 흥연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14
- 2) 「인체의 동세에 의한 도자조형연구」, 박선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5

ABSTRACT

A Study on Human Expression through Rainwear

-around my Works-

JIN LIXIONG

Public Art Major

Graduated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Every person experiencing trials and injuries never grows and develops. After experiencing a trial, if we do not make efforts to merely distress ourselves carefully, we can not discover the meaning of that trial and we will not be able to grow and develop by that trial. Therefore, I think a series of efforts to find out meaning, that is our attitude to quickly look at life and reflect.

In the work of visual art based on figurative expressions, much research on symbolism is necessary. A symbolic meaning that protection mechanisms such as umbrellas, raincoats, boots and so on will have a relative relationship with the non-railway, we will think about the double meaning of giving rain and express emotions as the same generation of the human body We explored the method to do.

In this thesis, research and analysis of creation background and

expression method of the work centering on his own solo exhibition <Rhythm of the rain> announced in 2017, it is a symbol of things through the figure of the person wearing the rainwear, the human body It consisted of three pieces with multifaceted focus on the expression of internal emotions through expression of the shape.

Chapter 1 Introduction described the chance to express the personal situation and experience of a person who experienced a recent trial with works of expressions that are ruins.

Chapter 2,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 which describes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raincoat and rain, the representation of the same generation of the human body with the process and the work of the principal, and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human body and the raincoat, Described the change of emotional line.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organiz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work is described.